

# “대구경북 ‘혁신 슈퍼 허브’로...진짜 지방시대 열 것”

### 국힘 4강 주자의 ‘TK 메시지’ 원희룡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합이 치열하다. 마지막 관문인 본 경선에 진출한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전국 순회 TV토론회, 후보 간 1대1 맞수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자랑하고 경쟁자의 흠결을 검증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제1야당 대통령 후보 확정에 앞서 대구경북 현안에 대한 주자들의 지역맞춤형 공약을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주제로 나흘 동안 소개한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1인당 개인소득 분야에서 최하위인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혁신의 슈퍼 허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 후보는 “인구·일자리·마을·도시 소멸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그리고 이를 위한 육·해·공 교통인프라를 대혁신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번영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 및 예산권 80% 이상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진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각 지역 스스로 정책과 예산권 그리고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때 각 지역 고유의 발전전략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특히 원 후보는 대구경북 시도민이

**“육·해·공 교통인프라 대혁신 중앙 정책·예산권 80% 이상” 통합신공항도 국비 건설 약속**

**“동부권 원전·에너지 허브로 빌 게이츠 경북에 초청 협의”**

염원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 투입을 통해 신속하게 공항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인더뷰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로 건설을 추진하자는 방향성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집권 직후부터 정치권과 협력해 빠르게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조건부 수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북 구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 후보 캠프 제공

미시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낙동강 분류의 수질 개선 등 본질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원 후보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쪽의 희생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KTX 구미역사 신선의 국비 지원이나 구미5산단 규제 완화 등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며 “취수원 이전 요구가 생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원 후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각 권역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기존 경제·교육·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대구공항 후적지에 대해

대구경북 미래 30년 먹을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로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후보는 “중입자 가속기센터를 설립해 포항 방사광 가속기, 경주 양성자 가속기와 더불어 ‘가속기 슈퍼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신약·초정밀 최첨단 의료기 등 차세대 기술산업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북 동부지역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면 빌 게이츠를 경북에 초청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SMR)과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며 “그 혜택은 대한민국 전력공급을 책임져 온 경북 동부지역과 주민부터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북 북부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일본 교토 외곽지역, 스위스 농촌지역과 같이 ‘청정-전통-문화-전문(과학적) 농축산업업’의 키워드가 맞물릴 수 있도록 ‘농촌 및 부심지 개발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며 “내국인 및 외국인들이 단기 관광뿐 아니라 중장기 관광 및 체류 여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 서부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구미시의 미래로는 ‘리쇼어링 슈퍼 클러스터’가 해법이라고 꼽았다. 한국을 떠난 제조업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구미를 그 첫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해 놓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유광준 기자 june@maeil.com



TV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한 이연주 전 의원. TV매일신문 제공

## “크크크... 국감장 이재명 비웃음 보며 싸늘함 느껴”

### 이연주 TV매일신문 ‘관풍루’ 출연 “바른 미래 열 후보는 홍준표 뿐”

이연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TV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 “경기도청 국감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크크크’, ‘호호호’, ‘하하하’ 등 조롱 섞인 비웃음을 보며 권력자로서 싸늘함이 느껴졌다. 무서웠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 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공익환수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꾀변”이라며 “공익을 교묘하게 활용한 사적 탐욕 특혜비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국감장에 악당이 쳐들어온 줄 알았다”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 질의 도중 웃으며 조롱하는 모습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자신의 편이 아니면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을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술 더 뜨는 (악한)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이 지사는 영화 ‘아수라’의 캐릭터 박성배 안남시장(황정민 역)보다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음흉한 악당 캐릭터에 가깝다. 만약 대통령이 돼 국민과 야당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면 무섭기만 하다”고 쓰아붙였다.

이 전 의원은 홍 후보 지지 이유로는 ▷본선 경쟁력,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 ▷후보의 리스크 관리 ▷탄핵사태 당시 정통 보수 야당을 지킨 우직함을 들었다. 그는 “홍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조직이 기쁜 세 과시는 나중에 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의 인터넷 조어) 등을 예로 들며 “젊은 층의 홍준표 지지 현상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열어 줄 후보는 홍준표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성훈 기자 cdrom@maeil.com

## “李, 소시오패스” TV매일신문 ‘관풍루’ 영상 후폭풍

원 후보 부인 강윤형 씨 발언 해당 기사에 댓글 1천700여개 소견 존중 vs 면허 취소 시각차 元-李측 인사 다른 방송서 대결

지난 20일 TV매일신문 ‘관풍루’에 출연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강윤형 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소시오패스 경향’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해당 기사(매일신문 22일 자 5면)에 달린 1천700여 개 댓글에선 이 후보를 보는 시각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딱 맞는 말, 전문의 소견을 존중

하라”는 의견과 “남의 당 대선후보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논란 끝에 사퇴한 황교익 씨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가세했다.

TV조선, 채널A, JTBC, YTN 등 여러 방송에 이어 유튜브(진성호TV·성창경TV)들은 원본 영상을 토대로 추가 설명을 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지 온라인뉴스와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재확산됐다.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

는 23일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결혼할 때 어떤 경우에도 아내 편에 서기로 약속했다”며 강 씨의 발언을 두둔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는 “의료 윤리 위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두 사람은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원 후보 측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야 극한 대결의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방송에서 자연스레 나온 얘기인데, 각자 시각 차이에 따라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권성훈 기자 cdrom@maeil.com



원희룡 후보 부인 강윤형(오른쪽) 씨가 20일 TV매일신문에 출연, 남편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TV매일신문 제공

### 모 집

#### 배달

**충무·배달원** 대전2동 신암2동지국 월급 약200 214)3113

**배달원모집** 남부지역 봉덕동 이천동 오토바이소유자 특대우 471)9478

**배달원모집** 오터바이 소지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

**배달원모집** 진량지국 경산시 진량읍 경산시 거주자 우대 010)3536)6620

직업배달원모집오토바이소지자 새벽2시~6시30분까지자유(1시간50분소유) 월50만원 남철곡지국 010)3810)7005

**배달원모집** 신천동, 신암동 일대 010)3046)3113

**배달원** 모집 북구 신역1·3·4동 일대 남여노소 가능 010)4628)1134

**성당지국** 성당동,감삼동, 본리동 일대 010)3819)0808

**배달** 원모집 황금두산, 자산지국 황금동, 두산동, 자산동일대 주택 상가 주부환영 경향자우대(762)4769

**배달원모집** 남대구·교대·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모집** 남신동일대 남여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종로지국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257)2902

**배달원모집** 울하, 신기, 안심 963)7355

**배달원모집** 파동 일대 남여노소 010)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일대 남여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모집** 달원모집 달성군 농공·목포 읍면 소재지, 남여노소 가능, 퇴임자, 오토바이소지자 우대 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 일대 남여노소 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동 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010)3071)3529

**배달원모집** 범어4동일대 매일신문종번 010)3515)6388

**아파트** 배달원모집 시지동, 노변동 지역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칠성동배달원모집** 칠성지국 010)6265)2152

**배달원모집** 동서변동 아파트 010)3545)5413

**대명3동** 두류동 일대 배달원 남여노소, 오토바이 소지자까지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일대** 배달원모집 남여노소 010)3513)0826

**배달원모집** 동성지국 남녀 연령 제한없음 422)0017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속식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모집 오토바이소유자 및 승현1·2동거주자 환영 승현 1동지국 625)6315-010)2809)0030

**충무·배달원** 남대명지국 초보, 휴학생 우대 656)3122

**배달원모집** 대신동일대 남여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종로지국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257)2902

**배달원모집** 파동 일대 남여노소 010)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일대 남여노소가능 962)3290

### 부동산

**빌라/원룸** 7세대 중동 대275㎡ 남 8m 매1099천만 주안살 고 보2억 7천 190만 010)3508)8001 No. 7기6-4827 수성동 맥부동산 박영철

**주택** 수성구 만촌동 대226㎡ 150㎡ 집 깨끗함 남20m 4동4 코너 매10억5천 010)3509)7789 No. 27260-2015-00087 수성구 대명동공인 최해국

**상가주택** 송현동 2층 상가주택 대172㎡ 도로10m 문명5억8천 초급매 010)4668)8972

**기타부동산** 만촌동 창고 겸 사무실 50 보2천 월100 ※매매, 청도 오토650 당15만 분할매010)5617)6474

**스크린** 골프매매(3억5천, 보5천, 월3, 3)/대형카페330㎡ (1억, 보2천, 월100) 010)9294)9006

### 상가

**아파트상가** 상가 906세대 대단지 사수동 서희스타힐스 보2천 월100/4억3천 010)2508)8894

**사무실** 역세권대로점 매매 165억 보20억 월6000만출 010)3501)1477

**부동산합동사무실** 200/22(사-관-관리포함)010)3200)3069 No. 27-2014-0079 달서구 보동 개업공인(경주)서정우

**일반상가** 분양525 전용336 보 4억 1800 원45억 1인수14억 주차전300 010)3549)1600

**대형마트** 분양525 전용336 보 4억 1800 원45억 1인수14억 주차전300 010)3549)1600

**우사·돈사·계사** 매매 전문 전국 물건 다량 보유 010)8242)4406

**수익용 빌딩** 역세권코너점 매매 275억 보26억(월, 권)1억2000 010)3501)1477

**사옥·교회부지** 통상가 북구영경 동 대200 건300 주인직010)6727)3330

**최고** 의류 신축건물 가청소나무 숲 속 카페 하실본 대(1370) 건 2동(390)가격절충 상담 053)655)0809

**※4층 상가** 아파트대단지 +상차 대도변 2억 월1200 39억 5천 010)3855)2015

**메디컬 빌딩** 역세권대로점 매매 165억 보20억 월6000만출 010)3501)1477

**황토찜질방** 약초농원 포장도로 지하 수. 57.341㎡ 당4만원 010)5392)1545

**모텔/목욕탕** 인수, 대구 최요지 010)7409)7995

**특급호텔 5천** 인수, 대구 최요지 010)7409)7995

**대지/임야/공장** 부지 대단지파 트말 20×8코너 대527㎡ 총매가24억 010)3509)6186

**병원·상가** 부지 대단지파 트말 20×8코너 대527㎡ 총매가24억 010)3509)6186

**경주시** 석장동 대, 1.917㎡ 22억 /석가람·다보림(모조품) 도 팔니다. 010)5525)4989

**신** 공항 경북도청+통합신공항 의성 안사면 2차선전주 과수원 15,001㎡ 당20만 주인010)4474)0666

**※수성구** 상업지 대1405㎡ 당4500만 대892㎡ 당1800만 010)3824)6788 No. 27260-2017-00171 수성구 수성동공인 배현철

**달구벌 대도로** 대2400㎡ 요양 병원 사옥부지 당3천만 010)3498)8696

**경산시** 약촌면 용천리 대구대학 북문부근 7,574㎡ 건축 可, 생산관리 당31만 010)3509)7789 No. 27260-2015-00087 수성구 대명동공인 최해국

**하양** 청천리555번지 외 6필지 1총일만 2112㎡(639) 당 260만 대구인적 주택(개인) 010)6525)2597

**※구지** 국가산단내 주유소 부지 2,644㎡/30% 상가 지을 수 있음, 당230만 010)4538)4590

**부동산교환** 상가+투자임야 /아파트 다량 보유 타물건 교환상담 010)8825)3413

**※교환전문** 상가+투자임야 /아파트 다량 보유 타물건 교환상담 010)8825)3413

**3억 알짜 펜션** 연 매출 3억 성업중, 호수가 고급 한옥 풀빌라 펜션 → 매10억 인수(우7억 별도)

**기와 촌집** 한옥+큰 마당+텃밭+주차장 대지 1,045㎡, 수성구30분 → 동평 1억9천

**멋진 임야** 53,554㎡, 포장도로점, 전기, 일부 과수원, 묘터, 나무식재 자연에 산다 명당자리 → 1억9천

47820-2020-00009호  
**청도 금복공인중개사사무소 054)371-3388 / 010-5819-7600** [청도 각북면 불기리 149]